전남도, 3개 기업과 1조3천억 규모 투자·업무협약

광양·여수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박차

화순 이양 신규 산단 개발 산업용지 적기 공급도

전남도가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총 1조3천억여원 규모의 투자·업무협약을 맺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화순에는 신규 산단 개발을 통해 산업용지 적기 공급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 디아이지에어가스㈜ 등 2개 기업과 1조2천4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양산업단지개발㈜과 60만5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동렬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 오규석 디아이지에어가스 대표 등 3개 기업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광양 국가산단에 1조원을 투자해 저탄소 철강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이번 투자로 고로 생산 방식보다 연간 35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산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철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디아이지에어가스는 여수국가산단에 2천42억원을 투자해 산단 내 타사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공급받아 정제, 액화 등 과정을 거쳐 수소가스와 초고순도 액화이산화탄소(액화탄산)를 생산한다. 기존에는 주로 연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를 새로운 원료로 재탄생시켜 탄소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단 개발 업무협약에 따라 이양산업단지개발은 1천77억원의 사업비로 화순 이양면에 신규 산단을 개발한다.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될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 개발은 전남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위기를 겪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기업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다

10월 기준 6억4천만달러…전년比 21.7% 증가

전남도는 25일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억4천53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 총액(6억3천164만달러)을 넘어선 규모다.

품목별로 신선농산물은 15.5%, 축임산물은 47.7%, 수산물은 26.6%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품목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쌀·배·파프리카·배추·버섯류, 농산가공품은 유자차·음료·김치·장류·과자류, 축임산물은 분유·닭고기, 수산물은 김·전복·미역·톳 등이다.

특히 김은 3억685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남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복 3천719만달러, 분유 3천295만달러, 유자차 2천158만달러, 미역 1천946만달러 등의 순이다.

시·군별 수출 실적은 목포시가 1억1천811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나주시 1억341만달러, 고흥군 9천799만달러, 신안군 8천866만달러, 완도군 6천899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주요 수출국별 실적도 두드러졌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30.2%, 일본은 20.7%, 러시아는 18.3%, 중국은 8.7%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로 일본에서 김·전복·미역·톳·멸치가, 미국에서 김·배·음료·전복·장류·면류·김치가, 중국에서 분유·김·유자차·음료가, 러시아에서 김·커피 조제품·분유·장류 등의 수출이 활발히 이뤄졌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품질 좋은 전남 농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전남의 맛과 품질, 글로벌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아 지속적인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출생아 수 감소…광주시, 저출생 예산 73억여원 감액

박미정 시의원 "문제 해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광주시가 출생아 수 감소로 저출생 대책 예산 73억1천만원 감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5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원회 심사에서 "광주시가 지속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만 61억원을 감액할 만큼 광주지역 저출생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올해에만 2천900억여원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에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처럼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제출된 저출생 대책 실적도 세부 사업별 목표 대비 수요나 예산 투입 달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과성에 대한 종합 평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출생률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가정·돌봄의 삼립 체계 구축과 함께 일자리나 주거 문제에 광주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망설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미사용시 소멸…전액 소진 인증 이벤트

광주시는 25일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당 13만원을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꼭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액 소진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공예, 철도, 시외·고속버스, 여행사, 휴양림·캠핑장,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액 소진 인증이벤트'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액 사용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을 만든 뒤 이를 증빙할 잔액 사진과 성명, 연락처, 카드 앞면 사진을 카카오톡 이벤트 링크(https://kko.kakao.com/IU2RirlstI)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1명에게 교촌치킨 반반 오리지널 한 마리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16일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광주문화누리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후 응모자 카카오톡 계정으로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3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제한된다.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는 12월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기수희 기자